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11월 11일(월)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서울대공원에 새 거처

- 지난 6월 한국 생활 시작 후, 40kg 대형견으로 빠른 성장 -
- 대통령 관저 생활을 마치고, 최적 조건 갖춘 서울대공원으로 이동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오늘(11/11, 월) 오후 새로운 거처인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해피’와 ‘조이’를 직접 산책시키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따뜻하게 보살폈던 대통령 부부는 이동 전날(11/10, 일) 더 넓은 새로운 거처에서 건강히 잘 지내라는 의미로 두 마리에게 각각 목도리와 커다란 간식을 선물했습니다.

알라바이는 견종 특성상 최대 몸무게가 90~100kg까지 나가고 체고(네 발로 섰을 때 발바닥부터 어깨까지 높이)가 70~80cm까지 ‘폭풍 성장’하는 견종입니다. 선물 받을 당시부터 현지 전문가는 생후 6개월 이후부터 다른 반려동물들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성견이 됐을 때는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뼈가 약해지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가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정 기간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한 후, 과천 서울대공원 등 외부 시설에 따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는 생후 40일가량 된 올해 6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다른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관저 생활 초기

에는 수의사 및 사육사의 보호 아래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환경과 사람, 다른 반려견들과 잘 어울리도록 사회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생후 7개월을 맞은 ‘해피’와 ‘조이’는 앞발을 들었을 때 170cm가량 되고, 체중도 40kg이 넘는 대형견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과천 서울대공원을 알라바이 전담 사육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과천 서울대공원은 수도권과 가까워 이동에 무리가 없고 청계산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여 알라바이가 뛰어놀 수 있는 활동 공간이 넓습니다. 또한, 다른 대형견들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 알라바이가 생활하는 데 최적의 공간으로 평가됩니다.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는 오늘 오후 무진동 동물 이동 전용 차량으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건강 상태 점검과 적응 시간을 가진 후, 기존에 서울대공원에서 기르고 있던 대형견(풍산개, 진돗개, 동경견 및 보더콜리 등 10마리)들과 함께 생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공원은 ‘해피’와 ‘조이’가 동물권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